
 국토교통부	<h1>보 도 자 료</h1>		
	배포일시	2019. 6. 17.(월) 총 8매(본문 3, 참고 5)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담당자	• 과장 김남균, 사무관 백선영, 주무관 공성민 • ☎ (044)201-3730, 3733, 4849
	균형발전위원회 공간정책과	담당자	• 과장 김영아, 사무관 최현숙 • ☎ (02) 2100-1184
보도일시		2019년 6월 18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17.(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 우리 동네 낡은 집수리·주민 돌봄·일자리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 민간·공공·비영리단체 맞손, 28일까지 새뜰마을 내 지원사업 신청 접수
- ▶ [노후주택 개선] 5개 지역, 총 200채 수리창호 및 도어락 현물자재·인건비 지원
- ▶ [주민 돌봄] 사회복지 자원봉사 연계 등 15종 사업 지원
- ▶ [사회적경제 육성] 3개 지역 당 마을기업 육성 등 연 5억원(최대 3년간 15억 원)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19년 민관협력형 도시 취약지역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98곳 추진 중

○ 지난 6월 13일 사업설명회를 거쳐, 17일부터 28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7월중으로 민관협력사업 참여기관과 전문가의 서면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지역이 결정되고, 8월부터는 지역별로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 올해 민관협력사업은 물리적 지원을 위한 노후주택 개선사업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을 위한 주민 돌봄사업,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사업까지 세 종류의 사업이 추진된다.

### <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

□ 지난해 착수되었던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참여기관과 지원규모가 확대\*되어 KCC·코맥스 등 민간기업의 집수리 현물 자재, HUG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한국해비타트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 당 40채, 총 5개 마을 200채 노후주택을 정비한다.

\* ('18년) 전주 승암마을 등 3개 마을 106채 개선 → ('19년) 5개 마을 200채 개선

○ 지난해의 경우 지역 내 자활기업 등 소규모 집수리 단체들과 함께 사업을 시행하여 가구당 약 450만 원 상당의 현물·인건비를 지원 받아, 주민 자부담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주택 정비가 활성화 되고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전주 승암마을 20가구 정밀진단 결과 연평균 에너지 사용량 17%(319→265kWh/m<sup>2</sup>), 사용요금 약 40만 원(2,413→2,011천 원) 절감될 것으로 분석

### < 민관협력형 주민 돌봄사업 >

□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주민 돌봄사업'은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복지전문인력을 채용한 모든 새뜰마을 사업지역에 지원될 예정이다.

○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식품·생활용품을 제공하는 푸드뱅크, 의료 소외계층에게 무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의료 봉사단 사업 등 15종류의 맞춤형 복지사업이 시행된다.

### < 민관협력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

□ 작년 국비지원이 완료된 30곳의 '15년 선정 새뜰마을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육성사업'도 3곳 선정하여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은 지난 4년간 새뜰사업으로 조성된 마을카페·공동작업장 등을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협동조합 등이 운영하여 지속적 수익을 창출하고, 자생적으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민간재단·LH가 마을 당 연간 5억 원, 최대 3년간 총 15억 원을 지원하여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이 마을 내 주민조직과 함께 사회적 경제를 육성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남균 도시활력지원과장은 “달동네·쪽방 등 도시 취약지역을 위해 정부 지원으로 시작되었던 새뜰마을사업이 정부 혁신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와 함께하는 사업으로 확대되어 의미가 깊다”라며,
  - “사업의 시급성, 계획의 적정성, 주민의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와 민관협력사업 참여기관은 지난 5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19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및 주민 돌봄사업」의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향후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에 대한 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전반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시행하는 등 지자체와 사업 참여기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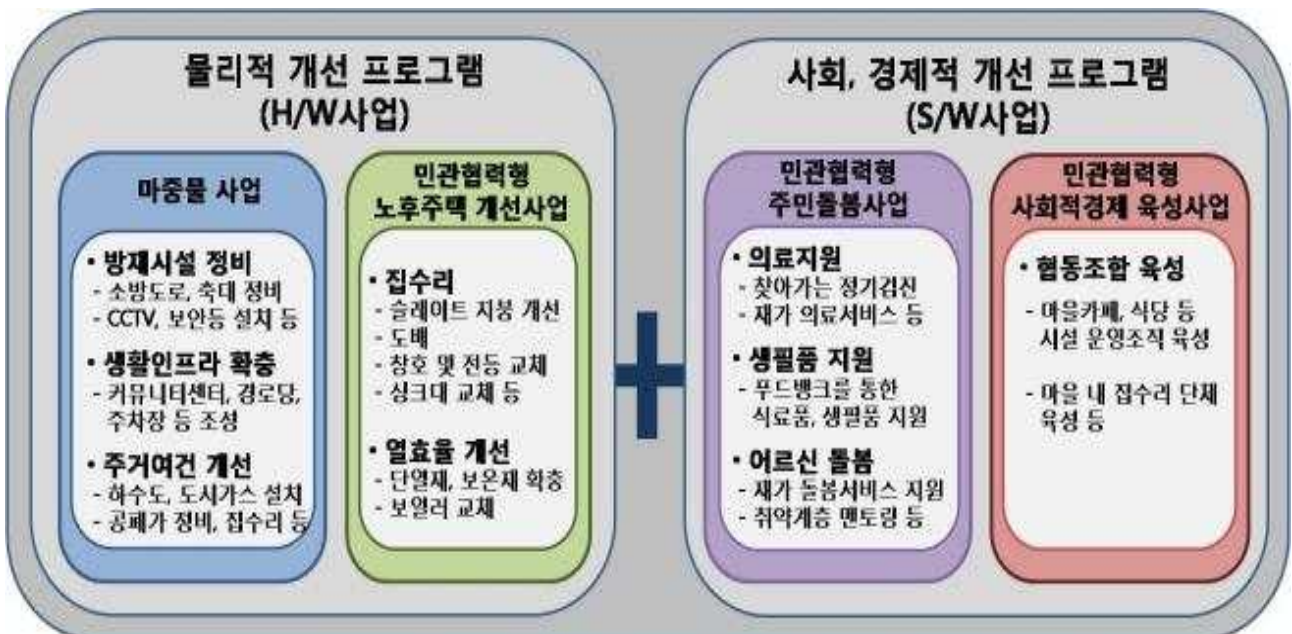
## 참고 1

# '19년 민관협력형 도시 취약지역 지원사업 추진 계획

### 1 지원 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새뜰마을사업 지역 중 민관협력사업을 통해 사업 추진 내실화 및 지역 내 자립기반 마련을 희망하는 지자체
  - (노후주택 개선사업) '16~'19년 선정 새뜰마을사업 지역 67곳
  - (주민 돌봄사업) '16~'19년 선정 새뜰마을사업 지역 67곳
  - (사회적경제 육성 시범사업) 국비지원이 종료된 '15년 선정 새뜰마을사업 지역 30곳
- 지원규모
  - (노후주택 개선사업) 5개 지자체
  - (주민돌봄사업) 사업을 지원하는 모든 지자체
  - (사회적경제 육성 시범사업) 3개 지자체

< '19년 민관협력사업을 통한 도시 취약지역 지원방안 >



## 2 지원 내용

① (노후주택 개선사업) 지역당 40채(총 200채) 노후주택 개선을 위한  
집수리 현물 자재(창호·도어락 등) 및 인건비

- KCC·코맥스 등 민간기업의 건축자재, HUG의 인건비를 통해 한국  
해비타트가 마을 내 직접 집수리 사업 시행

\* '18년의 경우 지역 내 자활기업 등 소규모 집수리 단체들과 함께 사업을 시행  
하여 가구당 약 450만원 상당의 현물·인건비 지원(집수리 자부담 대체 가능)

② (주민 돌봄사업) 민간·공공기관의 후원을 통한 푸드뱅크(식품·생활  
용품), 사회복지자원봉사(자원봉사자 연계) 등 15종류 세부 사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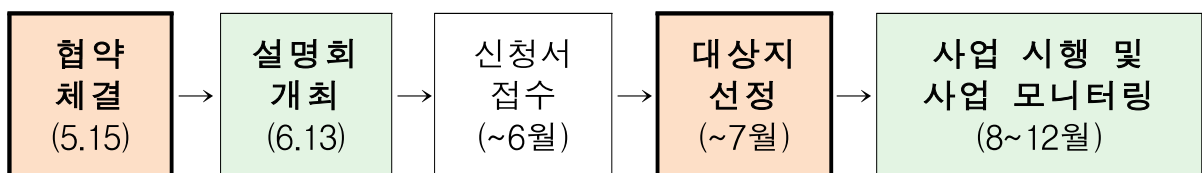
- 지자체는 주민 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공간·인력비 등 마련, 사회  
복지협의회에서 지원사업 연계 및 사업시행

③ (사회적경제 육성 시범사업) 커뮤니티시설을 운영하여 지속적  
수익을 내는 마을기업 등 육성을 위한 연 5억원(최대 3년간 15억원) 지원

- 민간재단·LH의 지원으로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이 마을 내 주민  
조직과 함께 사회적경제 육성

## 3 추진 절차

○ 참여기관 협약 체결(5.15), 사업설명회(6.13) 후 지자체 신청(~6.28)을  
받아 사업 대상지 선정(7.31) 및 지역별 사업 시행(8월~)



\* 민관협력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은 대상지 선정후 8월초 협약 체결

**1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 (사업내용) 민관이 함께 5곳의 도시 주거 취약지역 내 200채 노후 주택을 정비하여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및 재해위험 저감
  - '18년 창호·단열재 등 건축자재를 시작으로, '19년에는 도어락·전등·벽지 등으로 기업의 현물후원 확대
  - \* 창호·단열재(KCC) ('18년) → 창호단열재(KCC), 보안(코맥스) 및 벽지, 전등 등 ('19년)
- (추진 체계) 정부(국토부·균형위)의 예산, 민간기업(KCC·코맥스 등)의 현물 및 공공기관(HUG)의 기부금 후원으로 비영리기관(한국해비타트)이 지역 집수리단체와 함께 사업시행

**< '18년 사업 추진 성과 >**

- (노후주택 개선) 3개 마을 106채 노후주택에 대한 슬레이트 지붕·재래식 화장실 정비, 창호교체, 단열재 보강, 도배 등 집수리 시행
- (에너지 소비량 절감) 정밀진단 결과 사업시행 후 평균 에너지 소요량이 17%, 연간 사용요금이 약 40만원 절감될 것으로 분석
  - \* 연간 에너지 소요량 319→265kWh/㎡, 사용요금 2,413→2,011천원(전주 승암마을 20가구)
-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비롯한 9개 소규모 집수리 단체\*와 함께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
  - \* 할배목공소, 백년건축, 가온, 두껍이건축세상, 실내건축, 예술로 똑딱, 지음, 필건축, 한국주거복지



△ 노후주택 개선사업 시행 전·후(전주 승암마을)

## ② 민관협력형 주민 돌봄사업

- (사업내용)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복지전문인력을 채용하여 푸드뱅크\*, 찾아가는 의료봉사\*\*, 컨설팅 등 취약계층 맞춤형 돌봄 제공

\* 푸드마켓을 설치하여 취약계층에게 생활용품 및 식품을 지속 제공

\*\* 의료관련 공·기업 등 연계로 진료차량을 이용한 무료 진료서비스 제공

- (추진체계) 정부(국토부균형위) 및 지자체 예산, 민간기업·공공기관의 후원\*으로 복지전문기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 사업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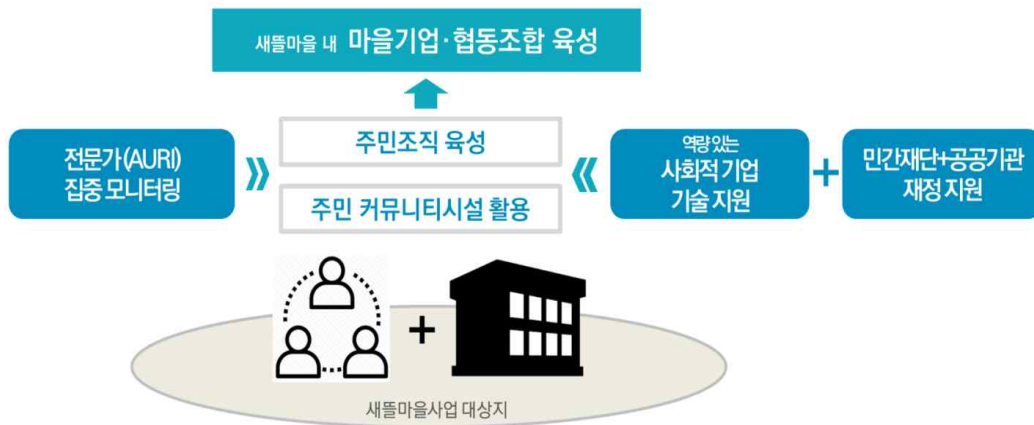
\*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을 활용

### < 주민 돌봄 세부사업(안) >

연계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푸드뱅크	취약 가정	연간 120만원 상당 식·생활용품 지원
자원봉사 활동 지원	독거노인 등	미용, 도배, 돌봄 등 맞춤형 지역사회봉사단 연계·지원
취약계층 멘토링	취약계층	사업비 최대 4백만원 지원
좋은이웃들	취약계층	가구당 최대 1백만원(반찬, 생필품, 의료비 등) 지원
사랑나눔 실천운동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생계비·자립지원 등 영역에 따라 40~60만원 지원
희망나눔지원	취약계층 및 단체	물품 구입, 개보수 등 최대 4백만원 지원
새생명지원	난치성질환을 겪는 취약계층	치료비 5백~3천만원 지원
무주택 임차자금 지원	무주택 저소득층	세대당 5백~1천만원 임차자금 지원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취약계층	세대당 최대 3백만원 공사비 지원 (노후주택 개선사업 연계)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취약가정 청소년	초·중학생 1백만원, 고등학생 2백만원 지원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부모가 교통사고를 당한 아동·청소년	초·중학생 1.8백만원, 고등학생 2.4백만원, 대학생 3~5백만원 지원
난방유 지원	독거노인 등	조손가정 1백만원, 독거노인 50만원 지원
찾아가는 의료봉사단	의료 소외계층	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진료차량을 통한 무료진료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종합 정보제공	주민	공공복지, 민간복지 등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
주민조직화 지원	주민	마을환경가족봉사단 운영, 복지정보지 제작, 마을공동체 조성 등

### 3 민관협력형 사회적경제 육성 시범사업

- (사업내용) 국비지원이 완료된 지역 중 잠재력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민·관이 함께 자생적 공동체 유지를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 새뜰사업으로 조성된 주민 커뮤니티시설(마을카페, 공동작업장 등)을 운영하여 지속적 수익을 낼 수 있는 마을기업·협동조합 육성



< 민관협력형 사회적경제 육성 시범사업 >

- (추진체계) 공공(국토부·지자체)의 행정, 민간재단, 공공기관(LH)의 기부금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이 사업을 시행
- 역량있는 사회적기업이 주민과 함께 지역맞춤형 사업 콘텐츠를 기획·실행하고, 전문가(AURI)가 집중 모니터링
- \* 사업 모니터링·성과 평가를 통해 마을당 최대 3년간 15억원 지원

#### < '광주 서구 발산마을' 사례 >

- (개요) 새뜰마을사업(국토부균형위, '15~'18, 51억), 청춘발산마을사업(현대차, '15~'18, 18억), 마을미술프로젝트(문체부, '14~'15, 3억)를 연계 추진하여 낙후했던 마을에 청년이 유입되고, 하루에 200~300명이 방문하는 명소로 탈바꿈



△ 청춘발산마을 사업 추진 체계

△ 유입 청년과 마을 주민 연계 활동